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

- 소강상태 들어서... 계란가격, 닭고기 소비량 안정세 -

작년 11월 16일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상 최악의 AI 피해를 기록하였다.

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폭발적으로 발생하다 최근에는 발생이 뜸해졌다. 현재(2017.2.17 기준)까지 총 342개 가금농가가 고병원성 AI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예방적 매몰처분 포함 가금 약 3,300만수가 매몰처분되었다.

이중 산란계가 약 2,780만수, 산란종계는 약 44만수, 육용종계는 약 84만수, 육계는 약 62만수가 매몰처분되었다. AI여파로 치솟았던 계란 소비자가격은 이동제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뚜렷한 감소량을 보였던 닭고기소비량도 회복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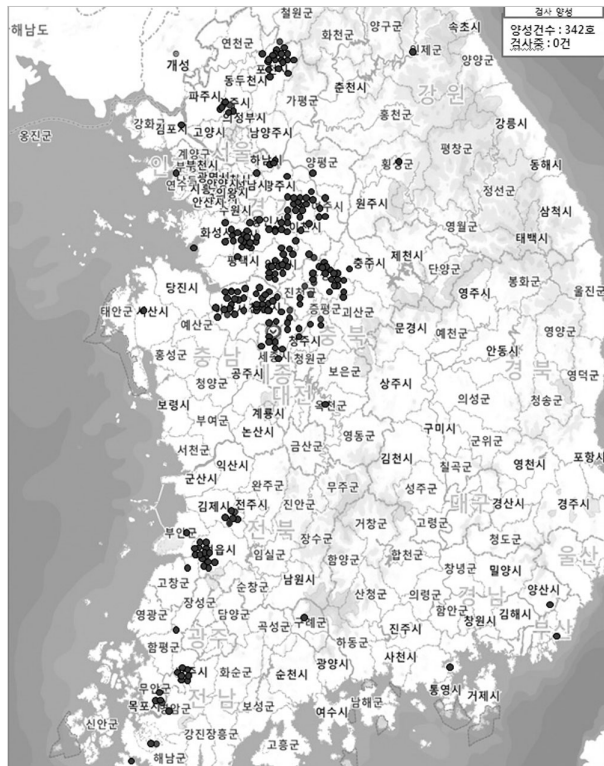


그림1. 고병원성 AI 발생현황(2017.02.17 기준)

표 1. 소비자 가격 일일 동향(단위 : 원, %, 육계는 지육, 출처: 농림축산식품부)

품 목	전년동월 ('16.02)	전월평균 ('17.01)	2.15(수)	2.16(목)	대비(증감%)		
					전년 대비	전월 대비	전일 대비
육계(원/kg)	5,107	5,062	5,476	5,431	6.3	7.3	△0.8
계란(특란, 원/10개)	1,824	3,032	2,615	2,590	42.0	△14.6	△0.9
계란(특란, 원/30개)	5,473	9,096	7,845	7,771	42.0	△14.6	△0.9